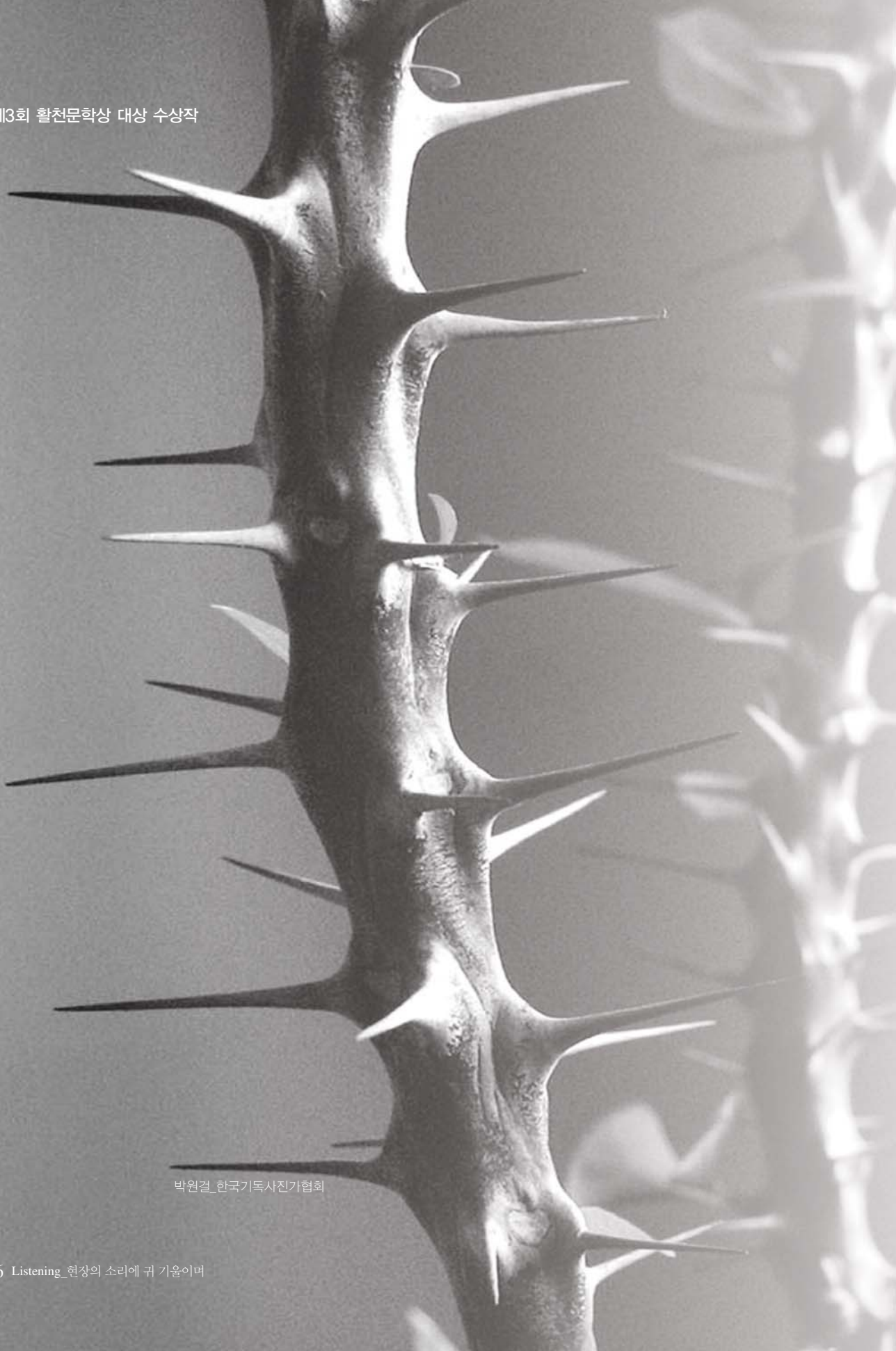


제3회 활천문학상 대상 수상작



박원걸_한국기독교사진가협회

호랑가시나무를 찾아서



권여원
서울북지방 동명교회

지금은 사라져가는 호랑가시나무
붉은 열매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
가시에 찢린 채 증동리에 버려진 그녀가
여기, 잠들어 있습니다

니느웨를 바라보는 주의 눈물
묘비명 위에 참방참방 고입니다
다시스의 뱃고동 소리
누구를 위한 바람인지 가만히 귀 대어 보면
소라껍데기에 영혼의 탄식이 쓰르르 부딪혀옵니다
낙타 무릎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던 땅끝의 그녀
가난한 상처 싸매며 모래알 같은 이름을 심고 다독이던
매마른 외침으로 사람들의 가시를 빼주던 그녀
해닿은 고무신으로 섬과 섬 이으며 십자가를 노래할 때
검은 그림자, 그녀 입술이 피어나지 못하도록
가슴을 짓밟고 죽창으로 찌릅니다

골고다 언덕 길, 면류관의 가시 뽑아내던
티티새 핏물이 이마를 적시고 세상 물들입니다
등대의 불빛
저문 땅 비추며 수평선 향해할 때
깨알 같은 이름들, 만선을 꿈꾸며
붉은 노 저어 갑니다

더 이상 등글지 않을 지구 끝에서
가시에 찢린 열매들
세마포 입은 구름에 깃털마냥 올라타겠지요

그녀의 피를 보았던
성결한 우리는 